논어 5편 공야장 17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晏平仲善與人交，久而敬之。」

독음 · 자왈 안평중선여인교 구이경지

쉬운 풀이(요약) · 안평중은 사람을 잘 사귀어 오래 사귄 뒤에도 공경을 유지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晏 늦을 안 안 / 平 평탄할 평 평

仲 버금 중 중 / 善 착할 선 선 / 與 너울너울할 여 여 / 人 사람 인

交 사귈 교 교 / 久 오랠 구 구 / 而 말이을 이 / 敬 공경할 경 경

之 갈 지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